

Bruce Waltke 박사, 시편, 강의 4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 역사적 접근, 시편 4편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본문을 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저희가 마음속으로 당신께 한 사람으로서 응답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께 말씀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 표정을 짓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당신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투명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을 냉철하고 진지하게 기쁨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복되신 구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간구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소개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신학, 직접적인 영적 생활, 적용을 얻습니다. 세미나리 과정에서 우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성경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진정성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좌의 목적은 시편의 신학이나 시편의 영적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것이 강좌의 뿌리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시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여 이해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텍스트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여 시편을 우리의 신학과 영적인 삶에 진정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식 중심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전례적 접근, 수사적 접근, 편집적 접근과 같은 다른 접근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을 보는 이 모든 다양한 방식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본문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역사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다윗이 쓴 것으로 여겨지는 시편의 저자라는 주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시편 73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다윗의 저자임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고등 교육 내에서 성경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론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론을 포함하는 역사적 비평에 기초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데이터가 다윗의 저자임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했고 다윗의 저자임을 옹호했습니다. 다윗이 저자라면 시편의 눈은 왕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면, 말하는 사람은 왕이고 그는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왕 안에 있었습니다. 왕은 나무였다.

그것은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이시다. 우리는 나무의 나뭇잎입니다.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찬송가집입니다.

우리는 시편 전반에 걸쳐 다윗뿐 아니라 고라 자손에게서 왕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일반 그리스도인이 볼 수 없는 참된 빛으로 시편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러한 근본적인 접근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갑자기 우리는 시편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편이 그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가 왕중의 왕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갑자기 우리는 그들이 그의 열정과 고통과 투쟁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감정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간 경험이고 그리스도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불신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셨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았고 그는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일단 이러한 역사적 접근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시편을 이해하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승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을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주와 시편이 우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이 개념을 광범위하게 살펴본 다음 이를 적용하기 위해 특정 시편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시편에 대한 광범위한 왕실 해석을 확립하기 위해 시편을 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을 바라보면서 시편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왕에 관한 것이라는 증거 중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시편에 진실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시편 4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범위를 좁혀 시편 한 편을 보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관점, 왕의 관점에서 이 시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가장 잘 이해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5개의 노트, 강의 4. 그리고 제가 개별 시편을 다루는 각 경우에는 서문과 몇 가지 기본 배경 자료가 있으며, 그런 다음 시편 자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론을 보면, 페이지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서론, 즉 25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시편 두 번째 부분인 강해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석은 저자가 의도한 대로 시편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강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편을 설명하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또한 주석이기도 하지만요. 그것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서론을 통해 우선 25페이지에 있는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서는 해석의 역사를 조금 맛보았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 이 시편을 묵상해 왔지만 우리는 종종 교회사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가톨릭 교회, 그 보편 교회의 일부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너무 자주 침례교 전통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가장자리에 살고 있으며 시간의 깊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교부들이 시편에 관해 말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역사가이자 옥스포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강의한 나의 좋은 친구 휴스턴 교수와 함께 기독교 예배로서의 시편과 기독교 애도로서의 시편에 대한 주석을 쓸 수 있는 독특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해석의 역사에 대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주석에는 정말로 시편 기자의 목소리와 교회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책임은 시편 기자의 목소리였고 그의 책임은 교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금의 입을 뜻하는 존 크리스소스톰(John Chrysostom)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히포에 있는 카르타고의 주교인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그 부분들을 살짝 만져보면, 나는 시편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편의 어려움은 시편 기자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편의 어려움은 무엇이 위기인가입니다. 그 중 일부는 번역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다면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가 무엇인지 소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제가 여기서 살펴보게 될 것은 우리가 항상 형태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나중에 할 일을 예상하여 형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수사법에 관한 것 자체가 별도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비평과 수사비평을 다루는 강의들에 대해 다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편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은. 우선, 그다음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페이지에 다윗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별도로 가질 수 있다면 박람회에 들어갈 때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나의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오래? 이제 제가 정당화해야 할 독특한 번역이 있습니다. 귀족 남성은 얼마나 오래, 거의 모든 영어 버전은 간단히 남성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 남성입니까? 이들은 평범한 남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고소득자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이다. 이것은 부입니다.

이제 나는 학문적인 교황을 믿지 않지만,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베뢰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조금 파헤치고 성경을 조사하려는 신도석의 사람들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로 그것이 귀족 출신이라고 말하는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례를 논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번역을 옹호하기 위해 32페이지를 펴보세요.

나는 학자인 교황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테이블 위에 카드를 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신교인이고 우리 모두는 데이터를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괜찮은. 이제 내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욕으로 바꾸고 왕을 대적하여 설명하는도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높은 출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신학교 수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beneish 입니다. 여러분 모두 베네 브리트 (Bene B'rit)를 아시거나 베네(Bene)라는 단어도 조금은 아실 것 같습니다.

Ben-Gurion과 같은 Ben을 의미합니다.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ene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베네입니다. 그리고 ish 는 ish 입니다 . 어제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beneish 는 단순히 ish 와는 다릅니다 . 이는 bene adam 이라는 다른 표현과 대조됩니다 . ish는 그 자체로 개인이 될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와 같습니다. 넓게 말하면 인류와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bene ish 및 bene adam 에 나타날 때 다른 모든 번역에서는 이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문자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ESV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장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 최고의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번역은 사람들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번역의 철학이다.

그들이 이 단어들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주목하세요. 이것은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주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49.2에서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낮은 것은 베네 아담 입니다 .

높은 것이 유익 합니다 . 그곳에서 그들은 내가 여기 시편 4편에 있는 “은혜가 있도다”라는 단어를 높은 수준으로 번역했습니다 . NIV도 같은 일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높은 대 낮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편 49장 2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세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의 다른 예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편 62:9의 말씀입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단지 호흡일 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망상이다. 가장 낮은 상태는 bene adam 입니다 .

가장 높은 상태는 유익 하다 . 그래서, 다른 두 경우 모두 그것은 높음으로 번역되거나 평범함과 낮음과 대조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시편에서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높은 태생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귀족들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미혹을 좋아하고 거짓 신을 구하려 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위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그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욕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미혹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지도력 내에서 배교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희 고자들아, 나의 왕 다윗이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나는 보통 사람들이 시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 영광이 언제 바뀌었나요? 그들은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해석하여 부끄러움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영광스러운 왕이신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서 떠나고 있으며 그의 하나님에게서도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신에게로 갈 것이고

어떤 주인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봉사하고 무언가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신의 돈이나 그것이 무엇이든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신뢰하고 무언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많은 사람이 mammon을 섬기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mammon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신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세계에서 거짓 신은 바알이고 그는 비와 폭풍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알이 누구인지, 그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고 거짓 신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갑자기 이해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번역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본이라면 전혀 다른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의 리더십이다. 이것은 그의 캐비닛입니다.

이들은 그의 조언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등이요. 그들은 왕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직면하는 것과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왜 나를 버렸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려는 일은 이 시편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로 시작하는데, 그는 일곱 가지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I AM)가 경건한 자를 따로 구별하였음을 알라. 내가 그분께 부를 때 나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떨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고위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침묵하십시오. 의인의 희생을 바치고 나 자신을 신뢰하라.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을 인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번역은 어느 쪽으로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번역될 수도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실행 가능한 옵션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 얼굴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나는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말씀하시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소서.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시편의 전체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해석 인 핵심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나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부한 때보다 그것이 esv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는 곡식과 새 포도주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을 원합니다. 아니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줄 것인가? 그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NIV로 그 번역을 옹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것은 3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논의합니다.

추수를 위해 왕이 작성하고 있는 페이지 중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충만함과 내 마음과 기쁨을 번역하고 문자 그대로 언제부터,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학술 문헌에서 속도란 의미는 당신이 괜찮다면 나는 당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틴어 속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 배열, 일반적으로 여기의 히브리어는 내가 당신에게 주지 않았지만 그것은 me'im 이 히브리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정상적인 것보다 상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8개의 시간은 다른 8개의 경우에서 항상 언제, 언제부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의 Me'id는 항상 일시적이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 구절을 제공합니다. 심차 다음의 민, 기쁨은 신명기에서 일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min이 상대적이라면, 주어지는 기쁨 등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곳에서 이 배열이 항상 언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나는 이러한 용어 조합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다룰 때 히브리어와 이와 같은 코스의 기본 배경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것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마음을 채우고, 채우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 히브리어 문법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신학자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 말을 통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성경의 계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신학자임을 깨달았고,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어가 어떻게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헬라어와 신약학 학위, 히브리어와 구약학 학위를 취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기초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신학은 말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확한 신학을 하려면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연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나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버터를 공부하지 마세요. 당신은 비행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비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당신은 파인애플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나무와 사과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코로케이션입니다. 같은 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코로케이션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모두 다시 히브리어에 익숙해졌습니다.

당신이 아직 물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익사시키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니 나와 함께 조금 쟁기질하십시오.

나는 얇은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종의 깊이 쟁기질합니다. 가끔 나와 함께 있으려면 조금 일해야 해요.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좋아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내 마음은 큰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나는 편히 누워 잠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번역이 좋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시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그분은 내가 안전하고 안전하고 안전한 곳에 거하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편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번역을 통해서만 시편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대한 역사적 접근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이 시편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교회 교부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347~407의 John Chrysostom입니다.

그리고 이건 휴스턴 교수의 자료인 짐 휴스턴(Jim Houston)에서 골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체 교회 역사와 교부들이 말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우리가 교회 안에 위대한 유산, 보편 교회 안에 있는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중개자나 연설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겸손하고 온유하며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분의 섭리적인 돌보심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오직 세상의 방식과 사물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이것이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 좋아하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함으로써 신학을 가르친다.

나의 하나님,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나이까. 다윗의 시편은 믿음으로 가득 찬 노래요, 교만의 숨결이 들어설 틈이 없는 헌신의 폭발이요. 이 시편에서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당신께 부르짖기 시작했는지,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그 시편으로 인해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인간의 교만에 대한 치료제로서 이 시편을 온 세상에 낭송 할 수 있었 겠습니까? 그의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의 단계를 표현한 시편 4편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것이 출구를 찾았다고 휴스턴 교수는 말합니다. 아, 이것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눈과 목소리를 통해 출구를 찾았습니다.

너희 선한 영이 우리를 향하여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마음이 완악한 인간이 되겠느냐 하였느니라 왜 공허함을 사랑하고 거짓을 쫓는가? 나는 확실히 거짓을 쫓는 것보다 공허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거룩하신 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당신의 오른편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은 당시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를 목양했던 교부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이미 언급한 역사적 맥락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역사적 맥락은 그의 리더십이 그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왕과 하나님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어느 하나를 버리면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란 무엇인가? 그들은 왜 그에게서 탈북하는 걸까요? 저는 위기가 무엇보다 먼저 가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비가 없습니다. 수확이 없습니다.

새 포도주가 없습니다. 밀도 없고, 빌릴 것도 없습니다. 가뭄입니다.

그게 위기인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시편의 청원 부분에서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 주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왕이 백성을 위하여 말씀하여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얻게 하시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이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형용사, 실질적인 형용사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선은 다른 곳에서 비와 수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것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편 85장 12절, 80장 27절 맨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우리 땅은 그 산물을 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와 평행법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처럼 선에 의한 모호함의 경우에는 산출되는 평행선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그 땅의 생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땅은 농산물을 생산할 것입니다.

단지 기대. 아시다시피, B 절, 즉 두 번째 줄이 A 절을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인 형식을 다룰 때 시를 읽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갑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주님이십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땅이다. 선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땅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시편과 시를 읽는 법을 배우면 훨씬 더 날카로운 칼로 그것을 자르기 시작하고 모든 구절과 그것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적절하게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묵상과 성경 공부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평행선은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땅의 산물이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 더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가을비와 봄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정한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비와 수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것인가라고 말할 때 비와 농작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을 따르는 그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우리에게 비와 농작물을 보여줄 모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문제를 말할 수 있는 확고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부족해요. 그것은 진짜 위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를 모두가 알고 있듯이, 특히 그 경제, 즉 농업 경제에서는 살고 생존하기 위해 매년 농작물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와 민족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의 첫 번째 부분은 가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을 주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편에는 독특한 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애도의 시편은 50편입니다. 47명은 적을 언급하고, 3명은 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침략하는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적을 전복시키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환유로서 다른 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명사를 다른 명사로 의미하며, 비와 수확을 위해 이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건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 4번과 일치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일곱 가지 위기를 언급합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일 때.

그 중 하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비와 농작물을 기원하는 기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는 저희가 주께 범죄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저희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섬김과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소서. 그래서 이 시편에는 죄가 있다는 암시는 없지만 가뭄의 위기 속에서 성전에 오셨다가 비를 맞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게 첫 번째 위기지만 두 번째 위기도 있다. 그 위기는 비에 대한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존 이튼(John Eaton)이 그의 왕권과 시편(Kingship and the Psalms)에서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이 남긴 두 가지 인용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동 상황의 좋은 점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라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이란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은, 그 세계는 내 학생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그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라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북부가 모술, 즉 아시리아에 대해 읽게 되는 곳입니다. 바그다드에 관해 읽으면 그곳은 바빌론이고 아래로는 바스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들은 모두 시리아의 일부로 함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은 내가 내 아버지, 신화에서 폭풍의 신이었던 내 조상 아다드의 왕좌에 앉은 이후로 그가 자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수중 샘의 신인 아르(Aar) 등등. 그리고 Aar는 그의 분수를 열었습니다.

숲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들이 그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 땅이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왕좌에 앉은 이후로 폭풍의 신은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었고 수중의 신은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이다. 그게 그 사람의 자랑이에요. 아니면 다시, 여기 파라오가 있습니다.

이제 파라오는 신이 되었습니다. 곡물의 신 아몬의 사랑을 받아 곡물을 생산한 것은 바로 나다. 내 몇 년 동안 배고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식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곡식을 생산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자랑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교도 종교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 그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입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미혹을 좋아하고 거짓 신을 구하려 하겠느냐? 그리고 거짓 신들은 하늘에 구름을 물고 천둥소리를 내며 그의 음성을 들리게 한 폭풍의 신인 바알입니다.

그래서 그는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에 구부러진 창(번개)을 들고 왼손에 큰 몽둥이(천둥)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이제 참 하나님에게서 바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대안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위기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은 인도 종교의 무당과도 같았으며 비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를 책임지는 진짜 왕이 있고 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의 왕권에 대한 의문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위기는 그 세상의 왕이 기도에 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의 위엄이신 그의 아버지 아몬 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실현되도록 하신 곡식입니다.

즉, 이집트 종교는 이름만 붙이고 주장하는 종교였습니다. 즉각적인 응답.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충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으나 바로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쁜 신학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덕과 그에 따른 보상 사이에는 항상 격차가 있습니다. 항상 공백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논평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하나님께서 미덕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파멸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이기적이에요. 그는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거야. 그것은 나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지연시키고 간격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성과 참된 믿음을 쾌락과 혼동함으로써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즉시 얻게 된다면 도덕과 즐거움을 혼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하나요? 그는 그것을 간격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칭의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이 덕과 인내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낳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발전하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위기를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편은 기도에 대한 응답 없이 끝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응답되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성경의 정경에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교리, 우리 자신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교화를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아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신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한동안 지속되어 온 위기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말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래서 왕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계속될 수 없는 위기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CS Lewis는 그의 마지막 소설인 *Till We All Have Faces*(우리 모두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에서 자신이 만든 노움의 고대 왕국 내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상황을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비가 그치고 기아가 그의 왕국을 위협하면 왕의 통치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하나요? 최고의 희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막내딸 프시케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제물로 바쳐지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교도의 반응은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I AM을 깊이 신뢰하기 위해 시험을 받고 있는 시편 기자의 반응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맏아들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이스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험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음이니라

그것이 그들이 그를 테스트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기를 겪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죽음에서 나오셨고 죽음을 승리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료법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때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좋아요. 그것이 바로 시편의 위기입니다. 이제 이 형식을 보면 제가 잠언을 쓰는
데 왜 30년이 걸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괜찮은. 글썄요, 다른 방법은 모르겠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보고 깊이 파고드는
것뿐입니다. 괜찮은.

그 형태, 우리는 이미 그 시를 보았습니다. 평행성, 간결성, 구체적인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형식은 애도 또는 탄원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편에는 뚜렷한 모티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주소입니다. 이 경우 입문 청원, 애도.

탄식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며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배교자들에 대한 일곱 가지 훈계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추수를 구하는 청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의 끝에서 그는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즉시 잠에 들어 사실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것이 끝나는 방법입니다. 수사학에
관한 한, 이 시점에서는 그만두십시오.

시편의 전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작품의 장르와 작가를 나타내는 위첨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2절에서는 장자들과 2~5절에 이르고 나서 그는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언약의 이름인 '나는 존재한다'로 하나님 엘로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서론적 간구는 1.B.1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듣고 고통에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귀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훈계를 주셨습니다. 그 책망은 그들이 왕과 하나님과 참하느님에게 불신앙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한 첫 번째 훈계는 너희 왕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왕을 알아라. 위기 속에서도 왕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왕을 알아라. 그런 다음 그는 쌍으로 함께 제공되는 여섯 가지 훈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떨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마음을 검색하십시오. 의와 신뢰의 희생을 바치십시오. 나는 존재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분은 I Am 청원에 대한 청원이다. 이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왕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연중 추수를 위함이니라. 그런 다음 왕은 확신을 가지고 암묵적으로 찬양하며 잠에 듭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는 시편 5편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음악감독이 시편 4편의 후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기도는 이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하도록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감독에게는 매우 중요한 후기이다.

왕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왕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이 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인 왕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왕국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영적인 통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시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전시를 살펴볼까요?

우선 위첨자는 왕이 쓴 것이다. 거의 모든 장학금이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것은 그들이 떠나고 그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그에게는 독특한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특별한 영광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그에게는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기업 연대를 맺고 있습니다. 보여주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들과 연대하여 “내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간다. 기업의 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저자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유를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으로 표시되었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닫힌 마음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괜찮은. 우선, 소개 청원과 함께 하나님 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기서 더 잘해야 한다.

내가 부를 때 대답은 이것이다. 실제로 세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답이다.

두 번째는 안도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두 가지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엘로힘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간, 그분의 영원한 능력, 그분의 비공유 속성과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그 사람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파생물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낳지 않았습시다.

신은. 그러므로 그분은 다른 모든 것이 파생되는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창조자입니다.

이것은 신이다. 하나님의 다른 말은 야훼(Yahweh)인데, 이는 내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그의 언약적 이름입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자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이름은 나다.

그러면 모세가 말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내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훼는 내가 있다(I Am)는 뜻입니다. 나는 그것을 번역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야훼는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한 I Am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 '나는 존재한다'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했습니다.

갑자기 야훼를 부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급진적인 변화일 것이다. 그래서 신약 중간기에 일어난 일은 야훼(Yahweh)라고 말하는 대신 항상 주(Lord)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칭호를 사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쉽게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야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더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그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는 아들을 통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곳은 프로비던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단순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시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안입니다.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말씀은 그분의 활동적인 속성이지 정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을 촉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왕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뒤죽박죽이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올바르게 설정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개인적이십니다. 그것은 나의 신이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단이라는 동사는 나를 바라보고,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내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이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길거리의 거지와 같습니다. 나는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부탁을 들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는 상황을 평가하고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는 위대한 기도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기도란 사건을 평가하고, 결정하고, 개입하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평가하시고, 나의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리시고, 개입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출판하면서 내가 놀랐던 것 중 하나는 Moody Press의 신학 단어집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에서 약간의 로열티를 얻습니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로열티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1980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무디로부터 일반 우표가 찍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너무 많은 문헌과 출판사에서 실제로 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가 말했죠, 음, 그건 정말 옳지 않아요.

그들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꽤 잘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나저나, 내가 그걸 왜 언급했지? 어쨌든, 그건, 그게, 아, 신학용어집이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이 사용하셨고, 많은 목회자들이 나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집에서는 이것이 제가 했던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단어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원래 Young's Concordance에서 이 작업을 수행했고 제가 그 지역을 가르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어를 알고 실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석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실제로 주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Young의 Analytical을 기반으로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괜찮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Strong이며 킹제임스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숫자가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단어가 거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당신을 말씀의 일치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모든 단어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학적 단어장에 Strong's Concordance에 해당하는 숫자를 갖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Strong's Concordance에서 숫자를 찾아서 우리 숫자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얻을 수 없었던 완전한 연구를 통해 단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 그건 정말 간단했어요. 그것은 내가 한 몇 안 되는 실용적인 일 중 하나였습니다.

무디가 한 일은 너무 간단해서 그들은 이미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다시 다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치시키고, King James를 얻고, Concordance를 얻고, 숫자를 얻고, 일치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종류의 단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감히게 됩니다.

그리고 구해 달라는 것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비난을 받는 것은 귀족 출신의 배교자들입니다.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일곱 가지 훈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족 배교자들에게 2절부터 5절까지로 나누어 고발하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그리고 첫 번째 훈계는 그들이 강력한 왕에 맞서 쓸모없는 신으로 변했다는 비난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훈계는 당신의 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다음 세 개는 4절과 5절에 쌍으로 나옵니다.

그게 B입니다. 그래서 고발과 1차 훈계에 넣어보겠습니다. 그것은 32페이지의 A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B는 자신감을 북돋기 위한 세 쌍의 훈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6절과 7절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람회의 개요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좀 잘못된 것 같아. 2절부터 5절까지에서 그는 배교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소와 첫 번째 훈계입니다. 비난은 그들이 쓸모없는 우상으로 변하고 강력한 왕에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는 첫 번째 훈계가 있습니다. 왕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훈계의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음, 어쨌든, 첫 번째는 배교자들에게 보내는 주소가 A, 즉 고발입니다.

B는 훈계의 세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청원을 할 것입니다. 자, 32페이지를 봅시다. 배도에 대한 비난은 그들이 하나님과 왕을 대적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용어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비난을 의미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도달한 교착상태이다.

계속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 영광, 수치에 대해 토론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소심하고 무능하다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망상을 좋아할 것입니까?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쫓고, 찾고, 충실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누군가 또는 사물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강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사람을 쫓고, 섹스를 쫓습니다. 그들은 명성을 쫓습니다.

내 말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에게는 기본적으로 돈, 성적 매력, 자존심이라는 세 가지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당신이 나와 같더라도 돈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성적 매력이 없습니다.

내 위험은 명성과 자부심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배우나 교사, 설교자의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망상이고 변덕스러운 칭찬입니다.

찬양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유혹이나 끊임없는 기도는 없지만 강단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응.

좋아요. 이제 그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권고는 기도에 있어서 왕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눈에 띄게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그의 충성스러운 자인 하 시드(Chassid)는 이 왕이 그에게 속한다는 자신의 언약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왕을 사랑하시고 왕도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나는 The Shack이라는 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여러 면에서 매우 나쁜 신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의 강점은 삼위일체가 서로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로 이 책의 강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그건 거의 신성모독이다. 당신은 신을 다시 형상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형상, 곧 그분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성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만들면 그것은 이미지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나는 흑인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는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또는 흰색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담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오두막에 오시면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릅니다. 나는 교회 교부들의 말을 듣습니다. 나는 그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맞았다. 나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책을 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가 보이나요? 그러니 당신의 왕을 알아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내가 부르면 그분이 들으실 것이다. 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왕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종의 심리적 콤플렉스 같은 것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왕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이고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은 줄을 모든 사람이 알았더라. 그는 선지자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영의 인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며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음, 비슷해요.

요한복음 5장에서 그는 자신에 대한 네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작품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구약 중간기에 그들은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카베오서 4장 9장에는 예언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예언이 그쳤을 때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예언이 그쳤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 땅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온 유다가 그의 말을 들으러 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례 요한의 구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무엘의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소돔에 임하였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들은 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며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의 세례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기름부음 받은 어깨 위에 아름답고 온화하고 온화한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와 그를 구별하여 광야로

몰아가는데, 그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도 못한 곳입니다.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것은 그가 고통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묻기 시작하실 때에 이르시되 돌아가서 요한에게 이르되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는 이사야가 말한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그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물론 죽음 자체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같은 방식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걷는다. 우리는 다르게 산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 말은, 나는 우리가 세계의 나머지 부분과 같은 목소리에 맞춰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 역사적 접근, 시편 4편입니다.